



4면

도교육청-전주시, 교육발전 맞손

전주매일

www.jjmaeil.com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2022년 10월 21일 금요일 (음 9월 26일) 제3123호

대표전화 (063)288-9700

발효, K푸드의 시작

전주국제발효식품엑스포 개막

24일까지... 세계 15개국 341개사 참여
코로나19 이후로 3년만에 대면으로 진행
20년 특별 기획전시·이벤트 등 확대

전북도(도지사 김관영)는 발효·K푸드의 시작이라는 슬로건으로 제20회 전주국제발효식품엑스포를 20일부터 24일까지 5일간 전주 월드컵경기장 만남의 광장에서 세계 15개국 341개사 420여개 부스 규모로 개최한다.

전주국제발효식품엑스포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발효를 주제로 하는 식품박람회로서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국제 전시 인증을 12년 연속 획득했다. 이번에는 2019년 이후 3년만에 대면으로 진행된다.

올해는 글로벌농생명관 선도식품관, 해양수산관, 생생장터관 등 전시 및 판매장과 전북도 음식문화촌, 가족과 함께하는 체험촌 등으로 구성했으며, 도내 식품기업의 해외 판로와 신규 시장 개척 창구 역할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전북도 코트리아 연계한 H2B 수출상

담회를 준비 했다.

또한 방문객과 도민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김치만들기, 전주비빔밥 퍼포먼스, '대한민국 식품명인'들의 고추장, 술, 감식초 만들기 등 농촌체험휴양마을(27개)이 참여하는 다양한 형태의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준비했으며, 특히 20주년을 맞은 특별 기획전시와 김하진 요리연구가 초청, 야외 쿠킹쇼와 푸드카빙전시, VR 식문화체험 등 다양한 콘텐츠를 통해 만족도를 높여나갈 예정이다.

김관영 도지사는 "20회를 맞은 전주국제발효식품엑스포는 대한민국 발효식품의 맛과 가치를 전 세계에 알리고 있다며 "농생명수도인 우리 전북 식품산업의 우수성을 알리고 세계 시장을 이끄는 데 온 힘을 기울여왔다"고 말했다. /김경수 기자



김관영 도지사(우)와 우범기 전주시장(중)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20일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제20회 전주국제발효식품 엑스포 개막식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국내 최대 요리경연, 익산에서 열렸다

시-NS홈쇼핑 공동주최 'NS쿠킹페스트' 성황리 '익산 미식식당' 첫 신설

익산시가 국내 최대 요리경연대회인 NS쿠킹페스트를 20일 성황리에 개최하며 식품산업 생태계 확장에 박차를 나간다.

익산시와 하림그룹 유통 전문기업 NS홈쇼핑이 공동 주최하는 '2022 NS쿠킹페스트'는 본선에 오른 100팀(2인1팀)의 요리경연이 참여한 가운데 미식투어, 미식로드, 일지리 박람회 등이 어우러져 '식품산업 축제'의 장으로 거듭났다.

이번 대회는 코로나19 이후 3년 만에 열린 국내 최대 요리경연대회로 '식품산업 발전'이라는 취지를 살려 식품산업 메카인 익산으로 무대를 옮겼고, 하림의 종합 식품기지인 '하림 퍼스트키친'에서 개최돼 미래 식품산업 현장을 보여줬다.

특히 요리경연의 주제가 '자연의 신선한 식재료를 활용한 가장 맛있는 레시피'로 미식 레시피 경연을 통한 상품 개발 노력 등 건강한 식품산업에 대한 소비자의 욕구를 반영한 축제라는 평가다.

열린 경향 속에서 펼쳐진 이번 대회 대상 수상자는 임영균·심영미 요리사로 '별집다락치킨왕과 발집마요소스 요리'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국내 최대 요리경연대회인 NS쿠킹페스트가 20일 익산시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사진은 시상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이다.

상과 상금 3천만원을 수상했다. 최우수상에는 박병훈·박미란 요리사의 '꽃샘이 안 가득한 황태 보양식'이 선정되었다. 본선 진출자 전원에게도 상장과 상금이 주어졌다. 올해 첫 신설된 '익산 미식식당'전은 익산내 닭요리음식점들을 대상으로 경연이 펼쳐져 '뽕의집(능이버섯생토종닭백숙)'이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한편 시는 이번 행사를 청년들에게 식품기업을 창업하고 미래 식품산업 리더로 지역에 기반을 내릴 수 있는 시스템을 선보이는 장으로 활용했다. 청년들의 식품기업 창업을 응원하

는 청년공유주방 시식체험, 국가식품클러스터 등을 포함해 지역기업에 대한 청년일자리 박람회 등을 함께 개최했다.

이 밖에도 시는 지역 특산물 관광과 연계한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익산에서 대를 이어 내려온 대물림 맛집 시식부스와 익산 미식식당전을 통해 관내 음식점을 홍보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했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익산에서 이번 행사를 처음으로 개최함으로써 본 행사가 익산시를 알리는 데 기여하고, 국내 대표 농식품 메카이자 식품수도인 익산의 위상을 대내외에 알리는 데 큰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익산=이재춘기자

전북도, 만65세 이상 인플루엔자 무료 접종

올해 12월 31일까지 가능 어린이 등은 내년 4월까지

전북도(도지사 김관영)는 어린이, 임신부, 만70세 이상 접종에 이어 20일부터 만65세 이상을 대상으로 인플루엔자 무료 접종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어린이·임신부의 경우 내년 4월까지, 65세 이상 대상자는 올해 12월 31일까지 무료접종이 가능하다. 무료접종 대상자가 아닌 경우 일선 의료기관에서 유료로 접종할 수 있다.

대상자들은 주소지와 관계없이 지정 의료기관(또는 보건소)에서 접종이 가능하며, 방문 전 접종 가능 여부를 확인 후 방문해야 불편을 줄일 수 있다.

대상자를 접종 편의를 위한 도내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은 913개소(어린이 321, 임신부 211, 어르신 800)가 지정됐으며, 지역별 위탁의료기관은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이달 12일부터 시작된 75세 이상 접종률은 54.8%로, 17일부터 시작된 만 70~74세 접종률은 32.0%다.

전북도 보건당국은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 동시 유행 가능성이 우려되는 만큼 고위험군 대상자들은 본격적인 인플루엔자 유행 시기(11월~이듬해 4월) 이전에 예방접종을 완료해달라"고 당부했다. /김경수 기자

토 일요일신문입니다.

장수 삼봉리 고분군서 최고급 청자 발굴

고려시대 돌방무덤 1기 등 확인

장수군이 삼봉리 고분군 발굴조사를 통해 고려시대 돌방무덤에서 최고급 청자 등을 발굴했다고 20일 밝혔다.

장수군 장계면 삼봉리에 자리한 삼봉리 고분군(전라북도 기념물 제128호)은 그동안 전북 동부지역을 대표하는 가야계 고분으로 알려져 있다.

군은 지역의 대표문화자원에 대한 역사성과 가치를 규명하기 위해 광범위한 삼봉리 고분군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발굴조사를 추진하고 있다.

이번 발굴조사는 전주문화유산연구원이 진행했으며 구역은 약 0.000㎡로 구역 내에서 가야시대 석곽묘 15기, 고려시대 돌방무덤 1기, 토광묘 1기 등이 확인됐다. 특히, 고려시대 돌방무덤은 장수지역 일원에서 처음으로 조사된 것으로 도굴이 되지 않은 온전한 상태로 발견됐다.



장수 삼봉리 고분군에서 발굴된 청자.

그 규모는 길이 2.5m 너비 1m, 높이 0.9m 정도이며, 내부에서 청자광구병 등 최고급의 유물이 출토됐다.

장수지역에서 처음으로 확인된 고려시대 돌방무덤을 통해 당시의 묘제와 장제를 이해하는 귀중한 자료가 확보됨과 동시에 당시의 위상을 추정해 볼 수 있는 중요유적으로 평가된다.

이외에도 가야시대 석곽묘에서 장경호, 단경호 등 지역의 역사문화를 밝힐 수 있는 소중한 유물이 다량으로 출토됐다. /장수=교관호 기자

장수군 JANGSU COUNTY

축! 전주매일 창간

아름다운 장수의 가을풍경이
여러분의 추억
여러행방을 책임집니다!

장수만세

NAVER 장수군청 검색